

“운영 전담할 법인·재단 설립 필요”



지난 1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 '아트광주 15 결산포럼'에 참석자들이 광주아트페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다. (아트광주15 운영위 제공)

아트광주 15 결산포럼 '광주국제아트페어 전망과 과제'

국제 미술 장터인 '광주아트페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운영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운영주체가 광주비엔날레재단-광주문화재단-한국미술협회-광주미술협회로 바뀌다 보니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광주미술협회(회장 나상욱) 주최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에서 열린 '아트광주 15-결산포럼광주국제아트페어 전망과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남대학교 류재한 교수, 갤러리 S 이명자 관장, 예대움갤러리 조승기 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올해 아트페어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다.

이들 발제자들은 구름 관람객을 모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체로 성공했다고 평가했

운영주체 수시로 바뀌어 역량·전문성 떨어져 작가부스는 의견 엇갈려

고, 처음으로 도입한 작가부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류재한 교수, 조승기 관장 등은 작가부스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지만, 광주비엔날레 조인호 실장과 이명자 관장은 “작가는 작품 활동에만 매진해야하고 판매는 화랑이 전담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류 교수는 “지역 작가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관객과 소통했고 중저가 작품을 전시한 점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다”며 “작가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갤러리도 방문해 그림을 구매한 점이 전체 판매실적

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인호 실장은 “기본적으로 아트페어는 화랑들이 작품을 거래하고 수익을 내는 미술시장인데 작가도 같이 작품을 팔면 공생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술 시장이라는 성격과 판매 수익이라는 목적성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아트페어 운영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전담조직을 구성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아트광주는 매년 봄에야 주 관처가 정해지다보니 늘 짧은 일정에 쫓기면서 관객이 줄어들고 공리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영마인드와 유통효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기 관장은 “미술협회가 모든 운영을 책임지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전문가 조직으로 법인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아트페어만의 패러다임 정착시켜야”

'아트광주 15' 집행위원장 나상욱 광주미술협회 회장

“미술대학생과 청소년, 젊은 작가들이 이번 '아트광주 15'를 통해 '예술 열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올해 광주아트페어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17일 '아트광주 15'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번 아트페어를 치른 광주미술협회 나상욱 회장은 “내년에는 올해 방식을 더욱 보완해 광주국제아트페어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작가 부스전을 열고 저렴한 작품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을 전시장으로 유인했듯, 내년 행사도 더욱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회장은 전날 열린 '아트광주 15 결산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광주아트페어 전담 운영조직 설립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갑자기 전담조직을 만들어 인원을 총족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인건비로 다 쓰일 뿐이다”며 “올해 행사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발전시키면서 노후가 쌓인 이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외 참여 갤러리를 섭외할 때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며 “광주 작가를 이용해 그림을 팔려는 일부 서을 화랑들이 아닌, 진정으로 작품과 작가를 생각하는 갤러리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 예술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 참여 작가 리서치 과정에 쌓인 광주비엔날레재단의 화랑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회장은 또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행사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몸짓 한가득 매난국죽 향기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의재, 허백련’ 공연

20일 광주전통문화관

“허백련의 삶을 춤으로 만나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전통문화관에서 ‘광주의 인물 의재, 허백련’을 공연한다. 2015년 지역특화문화가점지원사업인 ‘光. 7色 7舞 - 무릎을 춤추다’ 시리즈 중 한 편이다.

이번 작품은 허백련의 여정을 함께 한 매·난·국·죽의 향기를 한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창작무용으로 특히 의재가 활동했던 무등산 자락 야외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1장 ‘산시정람(山市晴嵐)-어느 봄날의 산낙’, 제2장 ‘소상야우(瀟湘夜雨)-빛발과 강나루’, 제3장 ‘동정추월(洞庭秋月)-물 위로 내려앉은 달’, 제 4장 ‘강천모설(江天暮雪)-강에도 하늘에도 하얀 눈들이’로 구성돼 있다.

김미숙 조선대 교수가 예술감독 및 안무를 맡았으며 김수영, 김차연, 김보라, 김원선, 나유정, 서로사, 박형주, 박소진, 박정민, 국미선, 조진솔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30-74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리오네트 유리 인형들이 들려주는 십자군 이야기

18~20일 '카르발라의 비발디' 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 무대



최근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간 자체가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빛과 어우러진 야간의 전당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개관페스티벌을 진행중인 예술극장(사진)이 야외 공간을 활용한 작품 외엔 사키의 '카바레 십자군-카르발라의 비발디'(18일~20일 밤10시·티켓가격 8000원)를 선보인다. 십자군 원정을 아랍의 관점에서 풀어낸 이번 작품은 유리 공예의 명가인 무라노에서 직접 제작한 유리 마리오네트 인형과 조각 200여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술극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장르의 예술에 호기심을 갖고는 있지만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관객들이 접하

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개관페스티벌에서는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랑이'(19~20일),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새롭게 해석한 콘스탄틴 보고몰로의 '이상적인 남편'(18일~19일), 클로드 레지의 연극 '내면'(18일~20일)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9월 행사 21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땀 만드는 공연-김원중(사진)의 달거리” 9월 행사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달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열리는 공연을 추적으로 인해 일주일 앞당겨 진행된다.

이번 달 주제는 ‘달, 달, 달’이다.

출연진은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 바다 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우), 너티나무밴드(정은주·신희준·박우진·송기정),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 소프라노 유형민, 광주알핀로제오페라클럽 등이다. 또 주홍씨가 샌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며 무대 미술은 미디어 아티스트 신창우씨가 맡았다. 티켓은 따로 구입할 필요 없으며 공연 후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땀공장에 기부한다. 문의 010-35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